



西方側의 統合理論과 共產側의 合作
戰略과의 比較를 통한 對備策

보 관 용
(관 리 과) 5/6

1973. . . .

국 토 통 일 원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8월 6일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부설 국제문제연구소
 : 문리과대학
연구소장 : 박 奉 植
연구책임자 : 金 容 九

目 次

第一 . 序	1
第二 . 西方側의 統合理論	3
(가) 統함과 커뮤니케이션	3
(나) 機能主義的 統合理論	7
(다) 統함研究의 새로운 方向	12
第三 . 共產主義的 統合理論	21
(가) 歐美政治學方法論에 대한 批判	22
(나) 共產主義的 政治統合理論	25
(다) 共產主義的 經濟統合理論	30
(라) 兩體制간의 收斂論과 共產主義的 批判	39
第四 . 比較와 對備策	45
(가) 合作戰略—平和共存戰略	45
(나) 끝맺음	50

第一 序

西方側의 統合理論은 특히 歐洲問題를 中心으로 發展하여 왔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도 歐洲統合理論에 대한 重要的 몇가지 方法論의 檢討로 부터 시작한다. 統함과 커뮤니케이션, 機能主義的 統合理論, 그리고 Puchala 등의 새로운 方法論의 大要를 보더라도 그런 理論의 自由主義的 性格은 明白하여 진다.

이에 대하여 共產側의 統合理論은 COMECON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朝鮮에서 發展하여 왔다. 이것이 經濟的으로는 自力更生理論과 正面에서 對立되며 政治的으로는 朝鮮의 統合理論이 社会帝國主義라고 批判되고 있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는 朝鮮을 中心으로 한 共產側의 統合理論을 더듬어 보면서 그 社会主義的 性格을 檢討한다.

끝으로 社会主義國家의 自由主義國家에 대한 소위 合作戰略의 本質을 이루고 있는 平和共存戰略의 根本性格을 보면서 對備策을 살핀다.

第二 西方側의 統合理論

西方側의 統合理論은 歐洲中心으로 發展하여 왔으며 歐洲統合問題에 대하여 가장 많은 研究結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西方側의 統合理論이 根拠하고 있는 思想的인 根底를 밝히기 위하여는 歐洲統合에 관한 諸方法論을 分析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歐洲統合이란 現象을 歐洲에서는 주로 歷史學者, 法律家, 經濟學者에 의해서 研究되어 왔는데 反하여 美國에서는 그것을 政治學이란 眼目에서 研究하고 있다. 歐洲에서의 政治的研究는 특히 制度分析에 觀心을 갖고 往往 國民國家의 範圍에 限定되어 이것을 國際生活의 統一의 基礎로 看做하고 있는데 대하여 美國에서는 소위 政治學者들이 그밖의 모든 社會科學과의 密接한 紐帶關係로 인하여 綜合過程에 나타나고 있는 超國家的인 勢力들에 보다 더 觀心을 갖고서 특히 엘리트들의 態度나 統合程度를 測定할 수 있는 指針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研究하는데 努力하고 있다. 하여간 여기에서는 代表的인 몇몇 方法論을 검토하여 본다.

(가) 歐洲統合과 커뮤니케이션 - Karl W. Deutsch의 方法論

(a) 概念과 方法

54년에 나온 小冊子인 *Political Community at the International Level*에서 이미 著者는 國際的인 次元에서 政治的 共同體의 形成에 관한 깊은 觀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후에 著者가 展開한 理論의 方法論的 基礎를 構成하고 있다. 프린스턴大

학의 集團研究의 結果인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1957)도 54年の 命題를 援用하여 이것으로 統合過程에 관한 一般研究까지 發展시키고 그 結果를 北大西洋地域에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統合"과 "安全共同体" (Security Community) 등의 基本概念의 定義부터 시작된다. 政治的統合이란 特定地域에서 "制度와 慣例—形式的이건 非形式的이건 —를 同伴한 共同体意識이 強力하고 또 普遍化되어서 그 集團構成員간의 關係가 長期間 發展될 것이라고 合理的인 確實性" ¹⁾이 實現되는 것을 意味한다. 이 定義와 같이 統合되고 있는 集團이 "安全共同体"를 構成하는데 여기에는 두개의 形態가 있다. 하나는 複合的인 安全共同体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로서 그것은 거의 全体에 있어서 主權을 保有하고 있으나 紛爭을 平和的方法으로 解決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單一化된 安全共同体 (Amalgamated Security Community)로서 單一國家, 聯邦國家가 이에 該當되는 것으로서 스웨덴, 노르웨이와 前者의 美國은 後者의 例로서 들고 있다.

過去에 存在하였던 여러 形態의 共同体를 分析함으로서 그러한 構成에 必要한 條件들이 무엇인가를 決定할 수 있다고 하며 單一化된 安全共同体가 形成되려면 12個의 條件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1. 政治行爲에 適合한 主要한 價值들의 相互兩立性
2. 독특하고 매력적인 生活樣式

3. 最少限 몇몇 参与单位들의 政治的, 行政的인 能力的 顯著한 增加
4. 強力하고 보상적인 經濟的인 紐帶나 共同報償에의 期待
5. (將次統合될 地域 밖의 隣接地域과 比較할 때) 最少限 一部 参与单位들의 優越한 經濟的 成長
6. 統合될 地域의 相互境界와 그 地域內的 主要한 一部 社会階層 장벽을 가로지르는 社会的 커뮤니케이션의 견고한 紐帶
7. 最少限 一部 政治单位內的 政治的 엘리트의 拡大와 全体로서 新生 大同體를 위한 政治的 엘리트의 拡大
8. 적어도 政治的으로 연관된 階層內에 있어서 사람들의 地理的 社会的 移動의 相對的인 高度
9. 相互 커뮤니케이션과 去來흐름의 範圍의 多樣性
10. 統合될 单位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去來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全般的인 代價報償
11. 政治的 单位들간의 少数派가 되든 多数派가 되든 集團役割에 있어서의 어떤 높은 交換頻度
12. 行爲에 대한 相互間的 相當한 予測可能性²⁾

이러한 條件들을 보면 著者는 社会集團들의 態度에 깊은 觀心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行爲가 統合過程의 進行에 있어서 決定的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社会的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方法論이 國際的인 統合運動에 대한 研究에 重要하다는 것을 Deutsch가 其後 數次 強調하였으나 특히 두개의 研究에서 그러한데 하나는

이런 方法論이 國際關係論에 重要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政治的 統合現象을 明白히 한다는 것이다. 4)

(b) 하나의 모델 : 社会的 同化와 政治的 統合

Deutsch에게는 결국 歐洲共同体는 이 地域内の 紛爭이 避할 수 있다는 程度에서 安全共同体가 될 것이지만은 諸國家가 政治的, 軍事的인 分野에 있어서 主權을 保存하기 때문에 複合的인 安全共同体가 될 것이라는 展望이다. 5)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 發展된 安全共同体에 로 統合되는 것은 4個의 條件이 必要하다.

① 相互聯関性 ② 價值와 共同報償의 兩立性 ③ 相互共鳴性 ④ 共通的인 同一性이나 忠誠心 등이 그것인데 이들 모두가 社会集團들의 態度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예를 들자면 相互聯関性이란 것은 去來의 量이나 그밖의 커뮤니케이션의 量으로 測定되며 共通的인 同一性이나 忠誠心の 程度도 選舉나 인터뷰의 研究로서 決定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結果的으로 보면 歐洲統合狀態의 診斷을 効率的으로 하기 위한 指標의 選擇과 社会的 同化를 政治的 統合에의 前段階로 보는 限에 있어서 그런 診斷이 갖고 있는 悲觀的인 性格을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歐洲統合問題에 暗墨間에 使用한 이 提제를 그는 68年 國際政治統合의 모델에서 發展시키고 있다. 國際政治的統合은 既往의 業績에서와 같이 社会的 同化와 政治的 統合과의 關係를 統合의 必要條件이란 次元과 統合過程이란 次元에서 重要視하고 있는 것이다.

統合過程은 하나나 그 이상의 政治的 單位로 構成된 核心地域 (Core area)을 中心으로 展開되는 것이어서 어떤 地域的인 超國家的인 住民의 存在를 想定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住民의 構成은 學習過程 (Learning Process)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 過程中에서 參與者들 —엘리트와 大衆—은 相互間에 有益한 去來에 対応하고 새로운 利益을 獲得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行爲와 習慣을 取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 理解하고 相互信賴하며 当面하는 問題에 대한 同一한 展望과 共通된 解決로서 새로운 利益을 期待할 수 있게끔 된다. 이러한 段階는 超國家的인 機構의 創設을 통하여 政治發展段階에 있어서 統合過程으로 유도하게 되는데 그러한 超國家的인 機構는 또한 行爲者의 注意와 行爲이 國家的인 次元에서 共同體의 次元으로 바뀐다는 點에 있어서 政治制度의 여러 變化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Deutsch의 獨創性은 社會的 同化와 政治統合間에 存在하는 紐帶와 그런 統合의 程度를 測定할 수 있는 方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點에 대하여는 물론 歐美學者들 間에 批判과 論爭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省略한다.

(나) 機能主義的 統合理論

68년에 出版된 著書⁷⁾에서 Haas는 두가지 點에서 獨創的인 方法을 取하고 있다. 그는 우선 國際政治制度가 어느程度 存在하고 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그것이 形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研究해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第二次大戰 以後 諸

國의 再結合이 存在하여 왔는데 政治統合으로서는 그런 結果가 아니라 그러한 進化過程을 研究해야 된다는 것이다. 政治統合이란 그에게는 "相異한 民族의 政治的 行爲者가 그들의 忠誠心, 政治的 利害와 活動을 새로운 中心—이 中心의 機構가 既往의 國民國家에 대하여 權限을 行使한다든가 또는 主張하는데—으로 轉移하는 過程"인 것이다.

또한 Haas는 統合은 世界的인 次元에서가 아니라 地域的인 範圍에서 研究해야 되는 것은 經驗이 보여주고 있는 容易性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地域統合의 具體的인 例의 研究가 國際政治制度의 次元에 있어서의 統合의 메카니즘認識에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그의 理論을 본다.

(a) 機能主義的 統合—自動的 過程 歐洲石炭鋼鐵共同體의 經驗으로서 當初 理論化되기 시작한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을 간단히 말한다면 西歐와 같은 諸國의 經濟統合은 萬一 그것이 中央機構에 의하여 行하여 진다면 自動的으로 政治統合으로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1) 經濟統合

따라서 Haas는 統合過程이 시작되는 經濟統合에 注意를 기울인다. 그는 "制限된 經濟的 決定이 重要的 政治的 選擇 보다 優越하다."⁹⁾는 것을 恒久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이런 態度는 歐洲社會가 갖고 있는 多元的, 官僚的 그리고 工業的인 構造에 対応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統合은 같은 政治的인 選擇을 要하는 것이 아니고 統合過程에 參加하는 各國의 利害關係의 合致

만이 必要하기 때문에 容易하다는 것이다.

戰後 歐洲史는 다음과 같은 規則의 確認이라고 본다. # 統合을 促進하는 것은 蘇聯에의 공포나 美國에의 질투도 아니었다. 샤르마뉴, 法皇 그리고 西歐文明이 갖고 있는 過去의 榮光이란 스토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들이 COMECON이나 EEC를 탄생시킨 것은 아니다. 決定的인 衝動을 일으킨 것은 近代歐洲의 官僚的, 多元的 그리고 工業的인 生活에서 자란 合致된 經濟的 目的인 것이다 # . 10)

(2) 構造的 條件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이 成功하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構造的 條件이 必要하다.

무엇보다 그것이 適用되는 社會는 多元的 社會構造를 갖고 있어야 한다. 權力은 어떤 한 集團의 專有物이어서는 아니되며 競爭하는 多様な 集團에 차례로 分離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數個國家의 統合은 政治的 鬭爭이 대상으로 삼지 않을 基本的 價值에 대한 合意를 必要로 하고 있다. Haas는 다음과 같이 政治와 經濟의 聯関을 말한다. # 政治家들은 단순히 보다 더 溫健한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權力政治의 놀음을 拋棄하고 歐洲建設에 献身토록 決心하였다. 이와 같이 經濟的 技術者들이 政治家들의 庇護아래서 그의 役割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 11)

끝으로 機能的 統合은 政策決定 메카니즘에 있어서 官僚化가 되어 있는 社會에서 보다 더 展開된다. EEC諸國이 그 例인 것이다.

(3) 中央機構의 役割

Haas 에게는 中央機構는 政治統合過程에 있어서 主要動力인 것이다. " 같은 社會制度內에서의 紛爭과 調化의 共存은 물론 國家의 屬性 없이도 可能하리라는 새로운 國民意識의 創造와 永続은 制度의 存在와 形式上 政治的인 慣例없이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12)

中央機構에 대하여 Haas 는 그 法的 形式보다는 이제껏 構成政府가 保有한 機能을 수행할 權限과 意思를 더 重視하고 세가지 基本性格을 강조한다. 즉 新機構의 獨立性, 그들 權限을 擴大할 可能性, 統合된 分野와 其外의 經濟分野간의 紐帶性 등이다.

(4) 機能的 統合의 Spill-Over

萬一 이와 같은 中央機構가 存在한다면 " 政治的인 動機에 의한 共同市場으로 부터 經濟統合에로 그리고 결국 政治的統合에로 나아가는 것은 自動的이다. 西歐의 경우와 같은 機能的인 過程에 固有한 論理는 다른 길을 걸을 수는 없는 것이다 " . 13)

결국 經濟統合이 되면 점진적인 政治化의 過程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中央機構가 取한 諸決定이 여러 集團을 이런 水準으로 再組織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過程이 갖고 있는 Spill-Over 는 모든 方向으로 統合의 擴張을 유도한다; 最初 非參加集團에의 ; 外部國家들에의 , 擴張 등이다.

Haas 가 말하는 Spill-Over 는 모든 決定에 適用된다. 西歐와 같이 工業的이고 技術主義的 社會에 있어서는 經濟와 政治를 區別

할 수가 거의 없다고 그는 看做하고 있으나 그러나 兩者가 모두 같은 連續性에 屬한다고 看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連續性이 經濟統合으로 부터 政治的 統合에로의 自動的 轉移를 可能케 한다는 것이다.

統合은 새로운 政治共同体가 構成될 때에 完成된다. 政治的 共同体란 "特定한 諸集團과 個人들이 一定한 期間동안 特定地域内에서 다른 어떠한 政治的 權威보다도 그들의 中央政治機構에 忠誠을 하게 되는 事態" ¹⁴⁾ 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Haas의 理論은 經濟學者들 ¹⁵⁾ 을 위시하여 특히 S.Hoffmann ¹⁶⁾ 의 批判을 받게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다만 Haas는 The Uniting of Europe 第二版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反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背景變數간의 主要한 差異를 無視하였다.

둘째 이데오로기의 終末을 予見했음에도 불구하고 民族主義의 影響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至大하여 民族이라는 概念과 民族感情은 統合過程이 進行됨에 따라 쉽게 무너지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誤算이었다.

셋째 統合過程에 있어서 世界的 세명 (Setting) 과 外的環境을 너무 無視하였다. 이것은 東西間의 緊張緩和가 歐洲統合의 速度나 核心에 큰 影響을 미쳤다는 點을 고려해도 알 수 있다.

넷째 統合過程과 同時에 그리고 自動的으로 進行되는 歐洲社會와 政治스타일의 變型을 철저히 把握치 못하였다. 왜냐하면 統合過程과

관련되는 高度의 産業社会와 行爲패턴은 統合을 促進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17)

(다) 歐洲統合研究의 새로운 方向

(a) D.Puchala의 統合 모델

(1) 統合의 戰略과 動態

歐洲統合의 「왜」와 「어떻게」라는 問題에 대하여 專門 家들간의 여러 理論的인 差異에도 불구하고, Puchala는 歐洲統合이란 現象에 결부시켜야 할 事實에 대하여는 크나큰 合意가 存在하고 있다고 본다. 18)

또한 統合으로 나오는 構造的, 社会的, 政治的인 特徵에 대하여도 合意가 있다고 보며 이런 統合의 現象을 機構(機能과 權限), 政治制度 및 汎国家社会에 대한 研究로서 叙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前提에서 그는 地域的 統合을 地域制度의 当事国간의 構造, 스타일 및 雰圍氣의 여러 變化를 内包하고 있는 國際政治的 次元에서의 制度變型의 過程이라고 하는 動態的인 分析을 提示하고 그런 變型의 특징을 6개로 본다. 즉 民族的인 것 보다 地域的인 安定과 安保의 研究, 競争 보다 協力의 追求, 커뮤니케이션의 擴大, 信賴를 위한 不信의 除去, 地域的, 國際的 問題에 대한 反應과 解釈의 類似性, 紛争解決을 위한 武力使用可能性의 점진적 解消 등이다. 19)

統合된 共同体와 過程이 内包하고 있는 變型의 이러한 叙述을 한 然後에 그는 國際的인 次元에서의 社会同化의 過程과 政治發展

過程으로 극히 단순화된 政治的, 社会的, 心理的인 여러 過程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統合에로의 運動을 說明하려고 한다.

社会的 同化란 그에게는 汎国家的 社会, 다시 말하자면 相互理解와 信賴의 紐帶로 단결된 地域住民의 形成에 이르는 메카니즘의 總体を 意味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엘리트의 次元에서 實現되어 學習過程을 통하여 모든 住民에 擴張된다.

그러나 이런 學習의 經驗만으로는 地域政治發展을 說明할 수 없다. Puchala는 "社会心理的, 政治的 過程이란 基本的인 두 그룹의 相互關係"에 立脚한 몇개의 假設을 設定하고 다음과 같은 圖式을 展開한다.

政治發展過程의 始初는 民族的 엘리트가 競争보다는 協力關係를 扞하는 것으로서 결정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予測할 수 있고 信賴할 수 있는 關係의 가장 낮은 程度를 要하는 機能的 分野"에서 古典的인 政府間 組織에서 實現된다. 協力으로 부터 나오는 相互利益은 또한 同化를 強化한다. "社会同化와 政治發展의 最初의 相互關係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協力段階를 벗어난 이러한 發展은 協力の 恒久的인 必要라는 点과 協力の 初期段階에서 發展된 相互理解와 信賴라는 点에서 說明되어야 한다." 20)

政治機構의 發展이 上述한 두 그룹의 過程上的 相互關係로서 說明될 수 있는 것과 같이 超国家的인 政治過程의 發生은 같은 方法으로서 機構的 增加와 政治的, 職業的 集團의 利害와 競争의 組織간의 關係로서 說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超国家的 權力の 擴張

이런 문제에 대하여 Puchala는 Haas와 Lindberg, L의 見解를 取하고 있다. . 하여간 그의 獨創性은 分離되어 看做한 變數로서 統合을 因果關係로 說明하는 모든 分析을 拒否하고 變數全體를 測定하고 그를 相關關係를 研究하려는 方法인 것이다.

(2) 變數의 分析과 測定

社会的 同化와 政治的 發展간의 위와 같은 相關關係는 이 두 變數를 分析하고 測定할 수 있는 方法을 研究해야만 했다. 왜냐면 共同體의 形成에 있어서는 여러 段階가 分明히 存在하고 또 超國家的인 政府으로 向한 發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程度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한 그의 努力은 Deutsch와 同列에 屬하고 있으나 그러나 Deutsch가 研究한 去來는 오로지 社会的 同化만을 다룬 것이지 統合全體를 取扱한 것은 아니라고 Puchala는 보고 있다. 따라서 Puchala는 去來를 廣義로 定義하면서 이런 分析을 政治發展過程으로 擴張하고 研究된 關係의 多樣性, 性格 및 方向을 說明할 수 있는 指標의 設定을 提案하고 있다. 21)

社会同化的 研究를 위해 Puchala가 選定한 指標는 Deutsch의 그것과 別로 다른 것이 없으나, 단지 輿論과 態度的 展開에 대한 特別한 注意를 기울이고 있음은 注目된다.

政治發展過程의 檢討는 反대로 重要하다고 判斷된 여러 与件中の 選拔뿐만 아니라, 超國家的인 政治의 構造와 發展을 說明할 수 있는 指標를, 즉 中央機構의 創設과 發展, 政治集團과 職業的 集團간

의 및 이를 集團과 地域機構간의, 去來의 質的, 量的인 增加 등등의 指標의 設定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觀點을 獨佔關係에 通用한 것은 그의 具體的 研究의 例인 것이다.²²⁾

去來흐름의 分析에 특히 重點을 두는 그의 方法이 統合現象研究에 어떤 役割을 할 수 있는지 끝으로 본다. 歐洲統合問題에 있어서 Deutsch가 理解하고 있는 去來의 分析은 不充分하다고 본다. 즉 그것은 統合의 構成要素中 하나만을 說明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去來와 統合의 어떤 形態간에 必然的인 因果關係가 存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研究를 預言的인 目的에 援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B) David Easton理論의 歐洲共同体에의 適用

民族國家의 勝利를 預言하는 "多樣化의 理論家들"이나 西歐六個國이 聯邦 혹은 準聯邦체로의 점진적 發展을 予想하는 "統合의 理論家들"이나 모두가 "民族國家는 이제는 決定의 維一한 範圍는 아니더라도 消滅을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事實로 보아 正當化될 수 없다고 宣言한 Lindberg, L.N은 研究에 있어서 이런 事態의 說明이 絶對 必要하다고 강조한다.²³⁾

Lindberg는 Easton의 政治體系의 定義, 즉 政治體系란 全体社會內의 相互作用의 體系로서 이에 의하여 價值의 拘束的이고 權威的인 分配가 이뤄진다는 定義를 그대로 取하고 또한 政治體系의 持續性의 問題를, 根本的인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따라서 問題는 "歐洲共同体는 政治體系를 構成하는 行動體系로서 一定期間 存続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衝擊에 対応하여 그의 行動範圍를 擴張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것인가? # 24) 가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政治統合의 概念이 實際로 使用될 수 있도록 하는 次元의 概念으로서 變數와 메카니즘을 確認할 수 있다고 하고 이들의 相互作用으로 인한 体系의 發展으로 부터 나오는 可能한 結果들에 대한 相異한 모델들을 提示하고 있다.

(1) 政治統合의 諸 次元

여러 次元의 現象을 說明하기 위해서 그는 可能한 限 多樣한 敘述을 하고 体系의 諸 特徵간에 存在하고 있는 動態的인 相互關係를 明白히 하고자 試圖하고 있다. 그의 提案은 統合의 程度를 測定할 수 있는 指數를 위하여 이뤄지고 있는데 두개의 指標에 대하여 특히 觀心을 둔다. 하나는 体系를 特徵지우고 있는 政治的 業務의 区分의 範圍이고 둘째는 機構的 權能이다.

政治的 業務區分の 範圍(즉 機能의 範圍)는 歐洲的 決定이 存在하는 範域決定過程의 相異한 諸 水準 및 決定이 行하여진 場所를 다 같이 包含한다. 그의 分析에 의하면 國民國家는 그의 政策決定의 独占은 무너졌고 共同行動의 發展이 予期되지 마는 아직도 政策決定의 支配的인 最終 場所라고 한다.

体系의 機能的인 權能은 超國家的인 政策決定의 새로운 構造가 占하는 地位와 政治的 主役들이 그들 相互간의 行爲에 있어서 존중하는 規則과 規範의 登場에서 明白하게 나타난다. 이 概念은

Easton의 範疇에 따르면 「政治的 共同体」, 「權威」와 함께 体系의 第三構成要素인 「制度」에 결부되는 것이다. 25)

또한 그는 政治的 共同体와 国民国家를 相互 衝突的인 것으로 보지를 않고 国民国家가 어떤 問題를 獨自的으로 解決할 수 없기 때문에 共同体는 적어도 部分的으로 탄생되어 發展하여 왔다고 主張하면서 国民国家의 諸政府가 아직도 共同体機構의 維持와 合法化에 主要한 支柱라고 看做하고 있다. 決定의 새로운 構造의 發展은 하나의 基本的인 要素에 의존하고 있다. 즉 政治的 行爲者가 特定한 「게임의 規則」을 恆久的으로 수락한다는 것이다.

하여간 歐洲統合의 發展을 政治的 業務의 区分範圍와 機構的 權能이라는 두가지 基本指標로서 理解하는 Lindberg는 Deutsch와는 反對로 57-58年 以來로 發展이 가장 컸다고 말하고 있다. 兩者간의 反對는 그들의 前提, 다루는 期間, 使用하는 定義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2) 体系의 發展·變數와 메카니즘

機能的 範圍와 機構的 權能의 變動은 共同體의 成敗의 原因을 提供하는 것이 아니고 特定時期에 事態判斷을 하도록 하는 指標를 구성하는 것이다. 定義上 이런 指標에 影響을 주는 變動은 体系의 번영이나 쇠퇴, 즉 政治統合의 번영이나 쇠퇴를 가름한다고 看做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變數와 메카니즘—이들의 動態的인 相互作用이 体系의 內的 發展을 決定하는데—의 몇몇을 골라내고 있다.

여기에서 Lindberg 와 Haas, Schmitter,²⁶⁾ P의 差異를 볼 필요가 있다. Haas 와 Schmitter는 經濟的 統合이 政治的 統合으로 유도하는 一般的인 環境研究에 觀心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体系內的 變動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들의 分析은 政治的 統合으로 跳躍하게 하는 理由는 明白히 하고 있으나 跳躍前段階에 있어서의 "왜"를 說明하고 있지 않다. 反對로 Lindberg가 첫째로 觀心을 갖고 있는 것은 体系內的 變動인 것이다. 그는 機能的 範圍, 機構的 權能, 支持의 水準 必要의 統合, 리더쉽 등등의 가장 重要한 變數를 分離시키는 한 모델로서 共同體의 發展을 提示하고 있다.

(1) 支持의 靜的인 役割

어떠한 社會 政治的인 前後關係로서 統合過程이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主要한 것이다. 이와 같이 共同體의 諸人民을 연결하는 紐帶들의 存在, 同一化와 相互信賴의 程度 등이 諸問題들을 共同으로 解決하게끔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同一化에 의한 支持(Identitive Support)는 Deutsch와는 달리 그 體系의 成長과는 無關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反對로 體系自体가 그 體系의 構成員으로 부터 받는 支持(Systemic Support)가 體系成長能力에 대한 真正한 指標를 構

成한다는 것이다. 輿論과 엘리트內에 共同體의 合法性과 그 機構의 權威에 대한 合意의 存在 (Permissive consensus)는 體系가 長期間 存続할 수 있는 條件의 하나이며 「決定過程의 파라메터」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支持의 役割은 전적으로 靜的인 것인데 왜냐면 「社會, 政治的인 前後關係는 그것이 敵對的이나 友好的이나에 따라서 共同體의 體系의 成長을 沮害하거나 容易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決定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²⁸⁾ 그러나 必要와 Leadership을 통한 政治的 行爲者들의 行動은 體系成長에 直接的으로 認知할 수 있는 效果를 갖고 있는 것이다.

(2) 必要와 Leadership의 主動的 役割

歐洲共同體와 같이 部分的이고 不完全한 體系에 있어서는 必要의 계속적인 流出은 根本的인 必要條件이라고 한다.

이런 必要들의 影響은 그 사람들, 目的이나 利害關係의 性格에 따라서 지극히 相異하기 때문에 Lindberg는 目的에 따라서 여러 가지 行爲者의 Types을 区分하고 있다.

또한 政治的 行爲者들은 Leadership行使에 必要한 權能, 創意 및 에네르지를 바침으로서 體系成長에 대하여 決定的 影響력을 미친다.²⁹⁾ 必要와 Leadership이 結果를 낳는다는 것은 이 두 變數가 聯合形成의 메카니즘에 作用함으로서 共同體의 體系가 成長을 유도할 수 있는 決定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Haas의 影響이 뚜렷하다. Lindberg가 提示하고 있는 各 메카니즘은 相異한 구룹의 行爲者들에 따라서 相異한 進路를 밟는다는 것이다.

以上으로서 歐洲統合問題를 中心으로 主要한 統合理論의 概念과 方法을 보였다. 그들은 歐洲統合이 가장 發展된 統合의 경우로서 보고 一般統合理論과 模型을 試驗할 수 있는 場所라고 看做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命題와 解釈이 범람하고 있다.

끝으로 現在 그들의 理論은 全体로 본다면 一般統合理論을 지향한다기 보다는 여러 模型의 設定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三 共產主義 統合理論

共產主義的 統合理論을 보는 경우에 朝鮮을 中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COMECON 創設以來로 朝鮮 經濟學者들은 그들의 理論的 支柱인 馬스·레닌主義에 立脚하여 資本主義的 經濟統合과는 質的으로 다른 統合理論을 提示할 수 있다고 계속 努力하여 왔기 때문이다. 물론 朝鮮을 中心으로 한 COMECON 諸國의 經濟統合理論이 自力更生理論과 正面에서 對立되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中·朝鮮紛爭의 크나큰 原因이었음은 모두 아는 바와 같다. 따라서 統合理論을 보는 경우에 朝鮮을 中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理由의 또 한가지는 COMECON 諸國中에서도 社會科學의 諸分野에서의 理論的인 發展은 朝鮮이 으뜸이라는 事實도 있다.

共產主義에서 본 政治的 統合은 이른바 國際共產主義運動으로서 소위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에 立脚한 社會主義世界体制의 理論이다. 이것도 朝鮮을 中心으로 하는 COMECON 諸國의 立場이며 이것 또한 中共에서는 帝國社會主義理論이라고 排斥하고 있는 것도 다 아는 바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보아온 西方側의 統合理論에 대한 共產主義的인 批判은 어떤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우리는 西歐의 經濟統合에 대하여 朝鮮에서는 무수한 論文들이 나와서 공격하여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經濟學者들에 의한 論文들이었지 西方側의 政治的 統合理論에 대한 專門的인 批判은 아직껏 나오고 있

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事情은 理由가 있는 것이다. 朝鮮에서는 政治問題나 國際政治問題를 다루는 여러 研究所와 学会가 存在하고 또 一部 學者들은 獨立된 學問分野로서 政治學이나 國際政治學의 設立을 主張하고 있으나 아직도 公式的으로는 그런 學問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과 소위 "科學的 共產主義 理論"과 同一視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런데 朝鮮에서의 社會學의 抬頭를 생각하여 볼때 朝鮮의 社會學이 公式로 認定받기 以前에 이른바 부르주아社會學에 대한 徹底한 批判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면 最近에 비로소 나온 美國政治學方法批判研究는 앞으로 朝鮮에서의 政治學 抬頭에 대한 하나의 信號가 아닌가 하고 보아 지기도 한다. 하여간 統合理論이라는 歐美政治學의 一分野에 대한 專問的인 批判이 아직 나올 段階는 아닌것 같다. 여기에 最近에 나타난 美國政治學一般에 대한 批判을 잠시 보면 그 大要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然後에 그들의 體制理論을 잠시 보고 經濟統合理論의 方法論을 본다.

(가) 美國政治學方法論에 대한 批判

Kalenskii, V. G.는 69년에 "美國에 있어서의 政治學; 權力的 부르주아概念에 대한 批判"을 著述함으로써 朝鮮에 있어서 最初로 本格的인 美國政治學方法論을 批判하고 있다.

그는 美國政治學을 "權力的 科學" 다시 말하자면 美國社會의 歷史와 그 性格을 正確히 反映하고 있는 科學이라고 看做하고 있

다. 예를 들자면, 美国学者들이 比較政治論이나 國際關係論에 觀心을 갖고 있는 것은 '傳統的인 美国의 孤立主義'의 拋棄와 아울러 2次大戰以後 '美帝國主義外交政策의 未曾有의 膨脹'과 '國際政治生活에의 積極的 參與'로서 說明하고 있다. 또한 엘리뜨 理論 및 政治學의 經驗的 研究는 歐洲에서의 全体主義 파시스트政權 登場에 대한 直接的인 結果이자 反動的 產物이라는 것이다. 執行府의 權力增大, 부르주아政党的 寡頭政治的 傾向, 職業的 政治家와 官僚의 增加된 役割 等等, 이 모든것이 政治指導者들의 Personality 研究를 자극 했다고 한다. Merriam 과 Lasswell 에서 시작 되어 美国政治學의 行態主義的 方向을 定立한 政治學研究와 社會學의 統合은 실제로는 2次大戰終結以後에 發生하였으며 그것은 美国에서 '心理戰'에 대한 研究結果에 대한 產物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소위 機能主義的 方法論은 現存하는 資本主義的 秩序의 運命에 대한 觀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Kalenskii 는 美国政治學의 解釋을 知識社會學의 傳統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美国政治學概念에 대한 또다른 側面은 美国에서의 政治學이란 支配集團의 忠實한 道具라는 主張에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부르주아 政治學者들은 真正한 民主主義的 政治에는 欲心이 없으며 단지 支配階級의 여러 分派의 代表들이 現存하는 搾取的인 社會, 政治制度의 安定을 維持하는데 있어서 가장 效率的인 社會의 政治的 方向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欲心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側面에서 그는 美国政治学의 行態主義的 傾向을 說明하고 있다. 즉 「現存 社会關係의 安定化의 基本的 方法은 人民의 行態에 대한 支配의 組織化에 있다는 思想, 다시 말하면 人間의 行態는 共通된 法則에 따라 決定됨으로 그 法則을 明白히 한다는 것이 그런 支配實現의 關鍵이 된다는 것이 行態主義的 運動의 中心思想인 것이다.」 結論적으로 말하자면, 「美国政治学은 支配階級이 그 地位를 具体化하고 公告化하기 위한 目的으로 広範히 使用하고 있는 美国의 여러 社会科学의 分科中에서 前衛隊에 서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點에 美国政治学의 社会的 目的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와같이 Kalenskii 는 美国政治学者들의 研究結果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規範的인 假定을 解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Lipset 는 政治학과 政治社会学을 区分하는데 失敗하였다고 하고, Easton 은 「政治權力」과 「政治体系」概念을 原始社会研究에 適用하려는 社会人類学者들이나 Max Weber 의 誤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에게는 政治權力이란 階級과 國家간의 關係를 표시하는 歴史的 範疇인 것이다. 그는 특히 Easton 의 「普遍的 모델」을 批判하는데 根本적으로 그것은 社会權力和 政治權력을 区分하는데 失敗했다는 것이다.

結論적으로 본다면 美国政治学의 政治支配의 階級的 本質을 忘却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美国政治学이 갖고 있는 이데오로기를 重視하고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前述한 西方

側의 統合理論이 共產主義理論家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自明한 일이 된다. 30)

(나) 共產主義的 政治統合理論 — 體制理論

社會主義國家는 生産手段의 私有制가 廢止되고 따라서 人間에 의한 人間の 搾取가 消滅되어 何等의 矛盾이나 敵對關係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論理를 그대로 社會主義國家간에도 適用하고 그를 國家간에는 資本主義諸國關係와는 質的으로 다르다는 소위 " 새로운 Type 의 國際關係理論 " 을 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이에 관한 " 科學的 理論의 形成은 40年末부터 50年代初에 걸쳐 시작 "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最近까지에도 55年 歷史學者 Sanakoev Sh. p 의 論文으로 定式化된 " 無矛盾理論 " 혹은 " 無葛藤理論 " 이 支配하여 왔다. 이런 事情은 형거리事態, 中 紛爭 같은 社會主義體制內的 否認할 수 없는 矛盾關係가 露出된 以後에도 存続되어 왔으며, 그런 理論들은 대개가 朝鮮共產黨大會文書, 朝鮮共產黨綱領, 國際共產黨大會文書, 그 밖의 朝鮮政府宣言들을 解說하는 것에 不過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社會主義國家關係는 새로운 國際關係로서 完全平等한 國家간의 關係, 相互援助原則에 立脚한 經濟協力關係, 民族文化尊重的 文化協力關係, 그리고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으로서 團結된 敵對關係, 혹은 矛盾關係까지도 存在하지 않는 " 새로운 Type 의 國際關係 " 라는 것이다. 共產主義建設이라고 하는 같은 目的을 爲하여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으로서 團結된 敵對關係, 혹은 矛盾關

係까지도 存在하지 않는 '새로운 Type의 國際關係'라는 것이다. 共產主義建設이라고 하는 같은 目的을 爲하여 社會主義的 國際主義 原則의 '새로운 精神'으로 團結된 矛盾없는 國際關係로서 矛盾이 나 敵對關係로 충만되어 있는 資本主義國家關係는 質적으로 判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國家關係를 統合하는 指導原則은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이요, 이것을 그들은 60年初부터 소위 法原則으로 昇華되었다고 하여 社會主義 國際法이라고 한다.

소위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는 10月革命以前에는 勞動이란 階級的 連帶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간의 兄弟的 團結과 協力の 原則으로서 國際勞動運動의 原則이었다. 이것이 10月革命으로 소비에트 政權이 樹立되자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는 國家의 政策으로 轉換하여 完全한 同權 主權의 尊重, 兄弟的友好와 同志的 相互援助란 理念으로 粉飾되었으나 실제로는 물론 '쏘련에 대한 態度가 眞正한 國際主義의 基本的 標識였다.'고 그를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社會主義 世界體制가 形成된 以後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은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으로 昇華되었다고도 하고 '友好, 協力, 相互援助原則과 함께 民族自決에 立脚한 國家主權의 尊重, 民族的 特殊性의 尊重과 各人民의 希望을 表現하는 內政不干涉原則 및 民族同權이란 맑스·레닌主義의 體制를 反映하는 國家主權의 完全한 平等原則을 內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으로 굳게 團結되어 있다고 主張하는 社會主義 國際關係는 事實上 여러 矛盾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理論的 反省은 最近에서야 일어났다고 본다. 그것은 먼저 67년에 Butenko, A가 社会制度로서의 社会主義와 社会体制로서의 社会主義를 区别한 論文으로 惹起된 論争에서 나타났다. 그의 論文을 보면 69年 國際共産党大会文書에서와 같이 社会制度로서의 社会主義와 世界体制로서의 社会主義를 区别하고 있다. 前者에 대하여는 「맑스, 엥겔스, 레닌의 非常히 広範한 命題와 普遍化의 確固한 基礎위에 또 多年에 걸친 朝鮮의 社会主義建設의 經驗과 朝鮮共産党 및 모든 共産主義運動에 의한 經驗의 概括에 依拠할 수 있는데 反하여 体制로서의 社会主義理論에 대하여는 「맑스·엥겔스의 科学的 豫見이 前者와 같이 広範한 武器庫에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生覺했던 世界革命發展의 具體的인 길이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朝鮮學者들의 任務란 「맑스·레닌主義의 方法論과 엥겔스, 특히 레닌의 重要한 몇몇 思想에 의거하여 世界体制로서의 社会主義의 科学的 理論을 創造하는데 있다」는 것이며 「現在の 경우 그 生成段階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正確한 것일 것이다.」 즉 「새로운 Type의 國際關係」 理論은 現在 그 研究가 進行中에 있다는 反省이다. 따라서 既往의 諸 理論을 批判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 理論의 当初로부터 몇몇 要因에 의해서 科学文献上에는 社会主義 世界体制의 本質의 俗流解釋이 뿌리 박고 있다. 이런 解釋은 社会主義 諸国간의 客觀的인 相互依存關係가 意識的으로 調整된 協力, 그 關係의 社会, 經濟的 局面과 軍事, 政治的 局面을 区别하지 않고 따라서 「社会

主義陣營', '社會主義協同體', '社會主義 世界體制', 등등 諸概念의 內容에 있는 本質的인 뉴앙스의 差를 明白히 하지 못했다. 最近의 諸事件은 이러한 俗流解沢이 '國際關係의 새로운 型의 成立, 社會主義 諸國의 兄弟的 同盟의 發展은 複雜한 歷史的 過程이 '라는 것을 說明할 理論的 根柢가 될 수 없는 것을 明瞭하게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人間의 意志에 관계없이 客觀的으로 存在하는 世界社會主義體制와 經濟的, 政治的 協力과 相互援助의 意識的 調整에 의한 共同體를 區別하고 協同體가 體制發展의 가장 適合한 形態로 보고 있다. 둘째로는 '社會主義 世界體制的 概念이 成立한 當初의 時期에, 文獻上에는 社會主義 世界體制 發展圖式이 流布되었으나 이런 圖式은 本質的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면 혹은 一定의 條件, 아니면 먼 未來에서만이 正當한 理論的 假說과 命題를 包含한 것으로서 이것을 오늘날의 世界社會主義體制的 反映이라고 解沢하고 있다. 例를 들면 50年代(그중에는 60年代에도)의 科學的 文獻을 보면 當時 文獻의 若干의 筆者는 歐亞의 一聯의 國家구름이 社會主義發展의 길에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 그 相互關係로부터 過去의 敵對的 諸矛盾이 除去됐을 뿐 아니라, 原則的 不一致라든가 衝突은 물론 어떠한 矛盾이나 差異도 完全히 除去된 것 같은 發展段階가 시작된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조금도 誇張없이 斷定하고 있다. …………… 若干의 論者는 將來의 原則을 現在의 條件에 맞추어 希望을 現實로 轉換하여 社會主義 世界體制에 있어서 單一의 集中的 計劃化의 緊要性을 論證하며 가까운 將來에 個別國

家의 經濟的 發展의 相異한 水準의 平準化가 生길 것이라고 하고
 이미 現在에 있어서도 民族的, 國家的 境界를 考察하지 않고 國家
 間 經濟複合體의 創設에 着手할 수 있다는 등등을 생각하고 있다!
 세째로는 이런 "익숙한" 命題에만 의존한 俗流解釈으로 因하여 "社
 會主義 世界體制發展의 科學的 概念의 일련의 重要的 局面이 今日
 까지 거의 究明되지 않은 채 있다"고 反省하면서 그런 重要的
 問題들로서는 "社會主義諸國간의 矛盾의 根源과 性格, 社會主義世界
 에 있어서 國際的인 것과 民族的인 것의 相關關係, 個個國家의 民
 族的, 國家的 利益의 本質, 이들 國家의 外交理念과 外交方針에 대
 한 그의 影響, 社會主義 世界體制 諸國의 國際的 統一을 強化하는
 길과 形態,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的, 政治的 統合의 客觀的 基礎,
 段階, 展望, 其他 등등을 列挙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社會主義 國際關係理論을 全般的으로 再檢討하고
 새로 創造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創造한다 하더라도 그 本
 質的인 基礎는 맑스·레닌의 唯物論的 方法論에 立脚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러한 方法論에 立脚하여 社會主義 諸國의
 政治的 統合에 대한 理論이 나온다는 것도 再言이 必要없다. 이
 런 事情은 지난 69年 朝鮮科學 아카데미의 "世界經濟와 國際關
 係" 研究所 主催로 開催된 "國際關係論의 諸 問題"란 主題의 學
 術討論에 있어서도 討論參加者들의 大部分이 唯物論에 立脚한 그들
 나름대로의 國際關係論의 設立을 主張하고 있는 點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³¹⁾

社会主義 諸國의 政治的 統合에 관한 理論이 아직 이러한 幼稚한 段階에 머물러 있는데 比하여 COMECON 을 中心한 經濟的 統合에 대하여는 어떠한지 를 본다.

(다) 共產主義的 經濟統合理論

經濟統合의 資本主義的 形態와 社会主義的 形態 모두가 科學技術의 發展으로 인한 生産의 國際化에 根拠하고 있으나, 이들 形態의 性格은 統合되는 國家의 社会·經濟的 制度와 그 支配階級의 勢力으로 決定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그들은 COMECON 諸國의 統合過程과 EEC 諸國의 統合過程을 同一視하려는 歐美理論을 排斥하면서 시작한다.

그들에 의하면 資本主義的 統合의 本質은 資本의 適用範圍를 擴張하고 最大利潤을 獲得하기 爲해서 賃金勞動의 榨取範圍를 넓히는데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工業後進國이 先進國利益에 從屬되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社会主義的 經濟統合의 目的은 社会生産의 成長에 必要한 條件을 創造하고 그 效率을 增加시키며 人民福祉增進을 達成코저 한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것은 社会主義 諸國의 經濟的 團結의 客觀的 過程이며 이런 過程은 各國間의 對外的 經濟紐帶의 새로운 形態創造를 隨伴하여, 國民經濟構造의 相互 適應, 또한 生産, 科學, 技術의 主要部門에 있어서의 緊密하고 安定된 紐帶創造를 誘導하고 있다. 또한 社会主義的 統合은 個別國家가 單獨으로 解決할 수 없는 여러 問題를 國家的 次元에서 國際的 次元에로의 漸進的 轉移를 意

味한다고 한다. 이 문제를 자세히 본다.

(a) 統合過程의 國際的 性格과 그 動因

이 문제에 대하여는 朝鮮學界에서는 두가지 見解가 있어 왔다.

첫째는 統合이란 西歐諸國의 政策의 結果로서 생겨난 것으로서 資本主義諸國에 固有한 것이라는 見解이다. 그러나 이런 見解는 극히 少數에 不過하다.

둘째로 壓倒的인 多數見解인데, 그것은 統合의 客觀的 本質로부터 出發하여 그 統合過程을 世界的 發展傾向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統合傾向의 性格은 그 國家들의 社會 經濟制度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後述하는 資本主義的 收斂理論에 추종하는 것이라고 批判하고 있다.

이와같이 統合은 世界的 發展傾向이라는 것이다. 그 統合過程의 客觀的 性格은 生産力 發展의 一般的 法則性, 國際分業의 必要性, 科學, 技術革命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다.

따라서 統合過程, 즉 個個 民族 및 國家의 점차 緊密한 經濟的 接近은 生産力發展의 全過程, 社會的 生産構造에 있어서 根本的인 變動 및 國際分業, 그리고 顯著하게 增大한 科學의 經濟的 役割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現在 到達된 生産力の 發展水準은 個個 國民經濟란 境界의 狹隘性과는 矛盾되는 것 같이 되었으며 이 矛盾이 統合過程의 主要한 推進力의 하나인 것이다.

統合의 이러한 客觀的 本質에 관한 命題는 根本的인 意義를 갖

고 있다고 한다. 즉 統合은 一時的인 偶然한 現象이 아니고 合法則的인 過程으로서 資本主義의 諸條件下에서도 社會主義의 諸條件下에서도 나타나는 長期的 傾向으로서 社會主義諸國은 그 對外政策, 國內政策 및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戰略의 作成에 있어서 특히 考慮해야 할 傾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모든 問題를 이러한 一般的인 客觀的 諸前提만을 갖고 解決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統合過程은 여러 勢力의 影響을 받고 있으며 그 勢力의 作用은 特定の 社會, 經濟制度의 制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資本主義的 統合은 그 資本主義世界에 作用하고 있는 經濟的, 政治的 諸要因과 分離시킬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独占資本主義 諸國이 血眼이 되어 있는 問題의 하나는 充分히 広範한 市場의 必要性이다. 市場을 위한, 資本投下의 領域을 위한, 鬭爭이 帝國主義의 特性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다. 단지 資本主義가 2次大戰까지에는 領土의 強制的 掠奪, 植民地의 掠奪등에 의하여 市場問題를 解決하였는데 今日에는 그 可能性이 감소하여져서 個個의 高度로 發達한 諸國의 國內市場의 結合에 의해서 大規模的인 經濟領域을 創設할 必要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重要한 要因은 社會主義世界體制의 創設이라고 하는데 帝國主義는 諸國家의 經濟的 連合에 의거한다든가, 一致한 國內政策 및 對外政策의 實施, 社會主義諸國에 대한 共同行動의 實現으로서, 社會主義의 強大한 힘에 對抗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社会主義的 統合은 生産力 發展의 必要에 의한 것과 함께 生産 關係의 社会主義的 性格에 의해서도 惹起된다. 根本的인 經濟的, 政治的 利害의 共通性, 새로운 制度에 基礎를 둔 國際主義의 原則 最終的 目的의 一致 等等 이들 모두가 社会主義 諸國家의 보다 더 緊密한 經濟的 接近 및 社会主義的 相互協力の 範圍에서의 統合過程의 可能한 發展의 客觀的 基礎로 되고 있다고 하고, 또 社会主義 諸國의 緊密한 經濟的 結合의 必要性은 帝國主義에 대한 共同鬪爭, 두개의 体制의 經濟的인 競爭과 鬪爭의 必要로부터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社会主義 諸國家의 經濟的 相互協力は 政治的 一致團結의 強化, 諸國民의 安全保障, 다른 革命勢力에 대한 國際主義的 義務의 充分한 수행을 위하여 重要한 條件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起源과 原因에 관한 問題는 統合의 重要한 方法論的 諸問題의 하나라고 한다. 그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서는, 統合의 客觀的 基礎 및 그 國際的 性格, 무엇보다도 統合되는 國家구름을 支配하는 生産樣式, 즉 生産關係의 性格에 의해서 결정되는 統合의 內容이라든가 統合過程의 具體的 諸形態등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社会主義的 統合과 資本主義的 統合은 共通의 客觀的 諸前提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 社会的, 經濟的 本質에 있어서 그 手段에 있어서, 그 方法에 있어서, 그 經濟的, 政治的 結果에 있어서 判異하게 다르다고 主張한다.

(b) 經濟統合의 本質

本하나의 重要的 方法論的 問題는 經濟統合의 本質과 그 內容의 解明임을 강조한다.

그들에 의하면 부르주아 經濟學者들은 統合을 主로 그 外的인 側面, 즉 交換關係, 市場關係라고 보고 國家關係에 있어서 到達된 經濟交換의 自由의 程度를 統合基準의 基礎로 하고 있다고 한다. 國際的 交換에 있어서 差別措置가 적으면 적을수록 統合의 程度는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統合은 '完全競爭狀態' 아니면 '均衡狀態'로서 商品, 資本, 勞動力이 가장 좋은 條件이 있는 國家로 自然히 移動하는 狀態라고 부르주아 經濟學者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이 見解의 代表者로서 Röpke, W. Balassa, B.등을 列挙한다.

自由主義的 統合概念의 最大의 弱點은 統合의 복잡한 現象의 本質을 根本的으로 市場關係의 自由化와 交換에 있어서의 差別措置의 철폐에 歸結시키기 위해서, 流通領域 뿐만 아니고 統合되는 諸國의 生産領域도 包含되며, 그들 諸國의 經濟的 連関 뿐만 아니고 그 經濟構造도 內包하는 복잡한 經濟過程을 無視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또한 統合過程의 政治的 側面을, 國際的 交換에 있어서 國家的 諸制限의 廢止에 歸結시키고 있다고 한다.

부르주아 經濟學의 또다른 傾向인 '統制主義' 혹은 '管理經濟'의 主張者들은 諸國家구룹의 共通된 經濟政策을 主로 강조하고 統合의 經濟的 基礎라든가 그 機能등은 第二義的인 것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즉 統合政策이 統合에 주는 影響이라는 觀點에 注目하고 있다고 하고 이와같이 主觀的 要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부르주아的 統合概念의 特徵이라고 한다. J. Tinbergen, J. Weiller, P. Streeten 등이 이 範疇에 屬한다고 批判한다.

經濟統合의 부르주아的 定義 모두에 共通되고 있는 特徵은 生産關係의 役割 즉 國際的인 經濟連關에 대한 生産樣式의 影響의 無視라고 한다. 이 점이 맑스主義와 區別되는 核心이라고 한다.

맑스主義의 論理에 의하면, 사실 經濟的 過程임과 同時에 政治的 過程이다. 經濟的 過程이라고 하는 것은 問題가 諸國民經濟單位간의 広範하게 緊密한 結合, 分業의 깊이, 地域的인 經濟複合體에 의 合同에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고 政治的 過程이라고 하는 것은 統合이 國家간의 關係, 共同行動을 위한 諸政府간의 多面的인 연결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統合이 단지 經濟的 過程만이 아니고 諸國家의 活動, 그들 經濟政策을 包含해서 生産關係, 諸階級의 狀態에 관계되는 政治的 過程이란 事實로 부터 統合은 同質의 社會, 經濟制度를 갖는, 즉 同一의 生産樣式을 갖고 있는 國家간에만 可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後述하는 兩體制간의 收斂論에 對한 그들의 態度가 明白한 것이다.

그들은 統合을 이와같이 同質의 社會, 經濟制度를 갖고 있는 複數의 諸國家의 國民經濟의 廣大한 經濟複合體에로의, 國際的 基礎에서 調整된 接近過程, 漸次的 合同過程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統合의 社会的, 經濟的 本質은 資本主義의 諸条件下에서와, 社会主義의 諸条件下에서와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고 한다. 資本主義的 統合은 一定的 國家구름의 範圍内에서의 經濟的 相互關係의 國際的 國家獨占的 規制의 過程으로서 나오고 그 經濟的 相互關係 가운데는, 私的所有와 資本의 힘이 支配的이며 利潤을 追求하는 獨占이 決定的 役割을 하는데 反하여 社会主義的 統合은 社会的 所有와 計劃經濟의 存在 등에 關係된 優越性의 利用에 根拠되어 實行되며 社会主義 諸國人民의 利益에 完全히 対応되는 社会主義 諸國의 計劃的인 經濟的 接近過程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c) 統合의 形態 및 方法

統合의 形態 및 方法의 選擇은 國內的 및 國外的 性格의 原因, 經濟的 및 政治的 性格의 原因, 諸國의 國際經濟關係에 있어서의 位置와 役割등에 의해서 制約되고 있다고 하고 그중 가장 重要한 要素에 대하여 본다면 그 選擇은 第一로 統合諸國의 社会制度의 性格에 의존하고, 第二로 統合諸國의 具體的, 歷史的 諸條件에 의존하며 第三으로 結合하는 諸國家의 經濟的, 政治的 目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資本主義的 統合과 社会主義的 統合의 目的의 差異는 그들의 發展의 길과 形態의 差異에 나타난다고 한다.

資本主義的 統合의 主要한 길은 統合되는 諸國간의 經濟的 諸障礙(關稅, 輸入割當, 勞動力, 서비스 資本등 移動의 制限)의 철폐, 私的獨占, 企業등에 商品, 用役의 相互販賣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相異한 國家들의 資本家들의 連合, 合同을 促進하는 諸條件中の 創造에 있다는 것이다. 統合의 具體的 形態도 이것에 一致된다. 統合의 形態는 혹은 自由貿易地域, 혹은 關稅同盟, 또는 勞動力, 資本의 共同市場創設의 形態라는 것이다.

또하나의 方法은 構成諸國의 經濟政策의 個個 方向의 一致와 資本主義의 戰略目標- 資本主義的 諸關係의 制度一般의 強化-의 達成을 向한 國家간의 共同活動의 構成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社會主義的 統合의 主要한 方向은 經濟的 相互關係 즉 社會主義的 國際分業의 計劃的인 組織과 規則에 있다는 것이다. 生産關係의 社會的 性格은 國民經濟計劃의 調整, 共通의 科學的 經濟豫測, 社會主義 諸國의 國民經濟의 諸部門을 위한 經濟政策의 調整 등등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資本主義的 統合과 社會主義的 統合은 判異하게 區別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統合過程의 發展은 國家간의 關係에 관련된 政治的 諸結果를 隨伴한다. 資本主義의 諸條件下에서는 그것은 다음과 같은 面에 나타난다고 한다.

第一. 그것은 帝國主義陣營内部的 一連의 새로운 特徵을 지닌 諸 矛盾의 發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經濟的 結合의 範圍内에서는 力內의 체계모니를 위요한 強大國간의 競爭이라든가 小國과 大國간의, 또 超國家機關과 부르주아 政府간의 對立을 隨伴하고 있다. 同時에 國際的인 國家獨占的 聯合의 創設은, 결국, 資

本主義 世界市場의 分割을 위한 經濟鬭爭의 中心이 個個 國家의 独占資本家간의 關係의 領域으로부터, 資本主義 諸國家의 諸구름과 이들 帝國主義的 競爭者들간의 關係의 領域에 로, 漸次 移動되는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이다.

第二. 그것은 第三世界의 分裂, 즉 聯合한 諸國의 나머지 國家들에 대한 對立을 목표로 하는 新植民地的 經濟블럭 政策 때문에 發生한 帝國主義的 統合과 發展途上國과의 사이의 諸 矛盾의 發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第三.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帝國主義的 統合의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差別政策에 關連되어 帝國主義的 統合과 社會主義 諸國간의 鬭爭의 尖銳化로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社會主義的 統合이 또한 어떠한 困難이나 矛盾없이 發展되고 있다고는 主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困難은 社會主義의 本質로부터 惹起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反對로 社會主義的 經濟制度 自体가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的 共通性에 의해서 增大하고 있는 國際的 利益과 國內的 利益의 組織的 結合과 社會主義 各國의 自主性的 強化 등을 基礎로 하는 國家關係의 發展에 의한 諸 困難克服의 可能性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社會主義的 統合은 그 本質에 있어서 극히 民主主義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世界經濟關係로부터의 隔離政策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며 同時에 社會主義 諸國의 緊密한 經濟的 接近과 함께 그것은 國際情勢를 安定시키는 重要한 要素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²⁾

(라) 兩体制의 收斂論 (Convergence) 과 共產主義的 批判

(a) 收斂論의 概要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은 統合이란 社會, 經濟制度를 같이 하고 있는 國家간에만 可能하다는 것을 가장 強調하고 있다. 이 問題와 관련하여 소위 收斂論에 대한 그들의 態度를 보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 한다. 이 問題를 呑으로써 資本主義社會와 社會主義社會간을 규율할 수 있는 形態가 무엇인지의 結論이 나오며 또한 對備策도 推론될 수 있을 것이다.

60年代로부터 歐美學界에서 抬頭되기 시작한 收斂論은 세계의 基本的 命題에 立脚하고 있다.

첫째 兩經濟體制간에는 점점 增大하고 있는 類似점이 存在한다.

둘째 兩體制간의 差異는 兩者의 相互接近의 結果로 서서히 消滅되어 간다.

셋째 社會主義의 諸 要素와 現代 資本主義의 諸 特徵을 합친 " 混合 " 型의 單一한 社會 經濟體制에로 兩體制가 轉化하는 궁극적인 傾向이 있다라는 것이다.

收斂論 創始者의 한사람인 Buckingham 은 58年의 著書에서 " 本 研究의 主要한 結論의 하나는 現在 存在하는 經濟諸體制가 異質의 것이라기 보다는 類似한 것으로 났다는 點에 있다." ³³⁾ 라고 하고 그 最後의 章이 " 單一經濟體制에로 " 라고 되어 있다. 이런 見解는 J. Tinbergen, J.K. Galbraith 에서도 뚜렷하다.

收斂論은 두개의 類型이 있다. 하나는 兩經濟體制의 差異가 점

차 克服된다는 命題에 立脚한 經濟學說이고, 둘째는 보다 広範한 社會學說이다. 이런 社會學說의 支持者들은 經濟體制 뿐만 아니고 經濟的, 政治的, 其外的 社會的 諸關係를 包含한 社會體制가 全體로서 相互간에 接近하는 傾向을 보여 주며 따라서 장차 單一體制로 融合하는 傾向이 있다고 主張한다. 이의 代表者가 R. Aron 과 P. A. Sorokin 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Aron은 社會主義體制와 資本主義體制를 '工業社會'의 두가지 變種이라고 하고 '이들 二種의 工業社會는 결국 接近할 것인가'라는 自己質問에 肯定的 答辨을 하고 있다.³⁴⁾ 또한 그는 '아마 모든 工業社會는, 將來 점차 相互 接近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普遍的 社會가 극단적으로 計劃化냐, 市場이냐, 또는 社會的 所有나 個人的 所有냐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³⁵⁾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Sorokin은 64年の 著述에서 收斂論을 매우 넓은 見地에서 取扱하고 있다. 本著書의 第三章이 '混合社會文化型에의 美·쓰' 相互收斂'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相互收斂을 그는 다음의 方向에서 取扱하고 있다. ① 自然科學과 技術, ② 社會科學 ③ 哲學 ④ 倫理와 刑法, ⑤ 教育 ⑥ 스포츠와 休息 ⑦ 造型藝術 ⑧ 宗教 ⑨ 結婚과 家族 ⑩ 經濟體制 ⑪ 社會關係 ⑫ 政治體制 등이다.

그는 이 모든 方向에서 收斂을 說明하면서 '萬一 人類가 새로운 世界戰爭을 回避하고 現代의 危機狀態를 克服할 수 있다며는, 將次 到來할 社會·文化의 支配的 Type는 아마 資本主義的인 것도, 共產

主義的인 것도 아니며 우리가 統合体라고 보일 수 있는 独自の인 Type일 것이다. 이 Type는 資本主義的制度·生活樣式과 共產主義의 그것과의 中間的인 것일 것이다' 라고 結論한다.³⁶⁾

이러한 收斂論의 論理는 두개의 基本的인 方向에서 證明된다고 主張한다. 하나는 兩体制를 점차 類似·接近시키고 있는 것은 技術的 進歩라는 것, 둘째는 兩体制가 社會·經濟關係에 있어서도 점점 類似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資本主義國家에서는 國家의 經濟的 役割이 強化되고 있는데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反對로 그것이 弱화되고 있다. 또 社會主義 諸國에서는 計劃化의 意義가 市場關係의 發達과 관련하여 低下되고 있으며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經濟的 不平等이 輕減되는 경향이 있고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反對로 그것이 增大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共產主義者들의 批判을 본다.

(b) 共產主義的 批判

그들의 見解에 의하면 歐美學者들의 收斂理論은 現代資本主義의 다음과 같은 現象을 反映하고 있다는 것이다.

- (1) 科學, 技術革命에 관련하여 生産의 社會化의 進展
- (2) 國家의 經濟的 役割의 增加
- (3) 計劃化 要因의 定着

그들은 科學·技術革命이 生産의 社會化를 顯著하게 強化하고 있다는 것은 認定하고 있으나, 그러나 收斂論者들은 이 側面만을 추상함으로서 現代資本主義의 現實을 歪曲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資本主義의 社会的 性格이 私的所有形態와 分離하여 나타 난다고 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實際로는 그 兩現象은 統一体로 存在하고 있어서 資本主義企業이 아무리 巨大化하고 이를 企業에 있어서 勞動의 集團的 性格이 아무리 發達하여도 그를 企業의 圧倒的 部分은 私的所有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私的 所有에 基礎를 둔 資本主義와, 社会的 所有에 根拠하고 있는 社會主義간에는 深淵이 存在하였고 또 存在하고 있어서 兩經濟體制가 "類似하다"라는 收斂理論의 基本理念은 단지 幻想일 뿐 아니라 有害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收斂論者들은 부르주아國家의 經濟的 役割의 增大와 資本主義 諸國에 있어서 計劃化 要因의 定着을 認定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歪曲하게 資本主義를 說明하고 있다고 한다. 부르주아國家가 資本主義經濟의 調整과 計劃化를 위하여 어떠한 方策을 實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全再生産過程을 計劃化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影響을 미치고 있는데 不過하다는 것이고 이점에서 兩體制의 根本的인 差異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므로 그들은 收斂論의 社会的 意味를 강조한다. 즉 收斂理論은 資本主義의 基盤에 서서 生産手段의 私的所有의 基礎에 立脚하여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統合"을 생각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統合化' 概念이 갖고 있는 方法論上的 根本的 誤謬는 社會의 經濟發展에 대한 觀念論的, 主觀的인 아부러치라고 한다. 즉 收斂論者들은 現代資本主義는 欠点과 同時에 長点이 있으며 社會主義

또한 그러하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兩經濟体制의 長點을 "統合" 하여 어떤 最適의 經濟社会機構를 創造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社会의 經濟發展이란 人間의 自由스런 選擇, 自由스런 意思에 의한 것이 아니고 容觀的인 經濟發展法則으로 支配되고 있다는 것이다.

資本主義 經濟法則의 作用은 다음의 結果를 招來한다고 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資本主義 生産樣式의 範圍内에서 社会主義·移行的 物質的, 組織的 前提가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生産의 社会的 性格과 資本主義 形態와의 矛盾 - 資本主義로부터 社会主義에로의 革命的 移行方法에 의해서만이 解決可能的한 矛盾 - 이 점점 發展되고 深化한다는 것이다. 社会主義에 대하여는 그 体制内에 作用하는 經濟法則은 社会主義로부터 共產主義에로의 漸次的인 成長을 規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未來는 思弁的으로 構築된 어떤 統合形態의 經濟体制가 아니고 社会主義 및 共產主義体制라고 하는 것이다.

第四 比較와 對 備 策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兩側의 統合理論은 完全히 相異한 出發點과 結論을 갖고 있다. 西方側의 統合理論은 個人을 政治分析의 對象으로 하는 意思主義的인 政治哲學이 깔려 있는 것이며 共產側의 統合理論은 階級을 政治單位로 보는 唯物論的인 政治哲學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其外의 모든 說明은 이런 根本立場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統合理論의 適用은 같은 社會, 經濟制度를 갖고 있는 國家간에만 可能하다고 主張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自由主義國家에 대한 戰略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平和共存戰略이며 소위 合作戰略이란 것도 平和共存戰略의 內容 바로 그것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서 그들의 民族概念이 더욱 問題됨은 말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共產側의 合作戰略 즉 平和共存戰略과 共產主義的 民族概念의 本質을 보면 自然히 對備策이 추출될 것이다.

(가) 平和共存戰略 - 合作戰略

그들은 平和共存이란 社會主義制度 自体에서 나오는 基本原則으로서 國際政治原則이자 國際法의 基本原則으로서 결코 一般的인 戰略이 아니라고 모두들 구구히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平和共存理論은 分明히 民族解放鬪爭을 支援하고 世界革命運動을 促進하기 위한 基本戰略이란 點은 注目되어야 한다.

그들의 平和共存 理論은 政治學에서 援用하고 있는 모든 美辭 麗句를 動員하여 理念化하고 있으나 그 本質은 階級鬭爭을 위한 하나의 戰略이란 點을 본다.

平和共存理論은 그 內容에 있어서 共產主義國家간에도 相異한 바 있다. 朝鮮, 유고, 中共의 그것이 代表的인 것일 것이다.

朝鮮에 있어서의 平和共存理論은 그들이 그 起源을 레닌에서 찾고 革命以後 계속된 그들 外交政策의 基本原則이었다라 主張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理論化는 56年 20次 黨大會 以後에 비로소 展開되었다는 것은 分明하다.

朝鮮의 平和共存理論의 核心은 다음 몇가지 點으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平和自体와는 區別된다. 平和는 戰爭의 不在 또는 防止에 不過한 것인데 平和共存은 그 以上の 것을 意味한다. 그 以上이라고 하는 것은 經濟, 文化 및 其外의 人間關係의 協力, 交流를 意味한다고 한다. 이런 點에서 보드라도 카가노비치 등의 平和共存概念이나 政策을 反黨分子의 平和共存理論이라고 하고 또 歐美學者 中에서 平和共存을 平和와 同一視하는 見解를 資本主義的 平和共存概念이라고 批判한다. 또 이 點에서 유고學者들의 見解를 修正主義的 平和共存概念이라고 공격한다. 유고學者들은 共存, 消極的 平和共存 및 積極的 平和共存 등으로 대개 区分하고 있다. 共存이란 社會主義國家登場 以前, 다시 말하자면 朝鮮革命 以前의 國家關係를 말한다. 그것은 戰爭과 平和가 相互 選択的인 關係로서

특징된다. 消極的 平和共存은 그 以後에 나타난 制度로서 根本的으로 戰爭禁止에 의존하고 그런 共存은 힘의 使用이 禁止되고 他國에 대한 被害를 招來할 行爲의 禁止로서 특징되기 때문에 消極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積極的 平和共存이란 아주 最近에 나타난 國際政治制度로서 國際關係에서의 同權, 主權平等原則 및 國際機構參加權 등의 民主的 秩序를 要求하는 制度란 것이다. 이에 대하여 朝鮮學者들은 모든 行爲 禁止로서 특징지워진다는 消極的 平和共和共存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또 平和共存을 消極的, 積極的으로 区分하는 것은 朝鮮의 平和共存概念만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을 宣傳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積極的 平和共存이란 朝鮮의 平和共存概念에 하등 새로운 것을 加味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둘째 이와 같이 朝鮮의 平和共存概念에는 특히 經濟關係, 貿易關係의 協力이란 面이 처음부터 강조되어 왔다. 그것은 특히 59年 21次 黨大會에서의 71年經濟計劃採択 以後 강조된 것으로 朝鮮의 貿易構造와 물론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셋째 그들은 革命以後 스탈린 時代까지의 平和共存과 스탈린 死亡以後의 平和共存과를 区分하고 있다. 區別이 되는 主要한 點은

(1) 歷史가 보여주고 있는 딜렘마는 平和共存이나 破滅的인 戰爭이나 하는 것으로서 平和共存이 人類社會發展의 客觀的 必然性으로 왔다는 것 (2) 平和共存의 可能性이 增加되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이 20次 黨大會體制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넷째 이러한 平和共存의 具體的인 內容은 그들간에도 意見이 統

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注目된다. 흔히 平和共存의 5原則만이 列挙되는데 事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平和共存의 内容이란 때와 場所에 따라서 그 内容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平和共存의 戰略性이 있다. 그들은 平和共存原則이란 國際政治原則일 뿐만 아니라 國際法の 原則이다. 아니 그것은 國際法の 強行規程 (Jus Cogens) 이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平和共存原則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당연히 無効라고 主張한다. 그런데 그 原則의 具體的 内容이 明白하지 못하다. 그 理由는 그들은 平和共存原則이 現行 國際法の 諸 原則을 一般的인 形式으로 實現하고 있을 뿐 아니라 國際法の 進歩的 發展의 全体 프로그램을 위한 可能性도 包含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判斷으로서 「 있어야 할 법 」 까지도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 있어야 할 법 」 이란 맑스主義에 立脚한 歷史發展法則에 相當한 것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이와 같이 平和共存原則이란 단지 「 있는 법 」 의 原則이 아님을 注意해야 된다.

다섯째 朝鮮의 平和共存原則은 根本적으로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國家關係에만 적용되고 社會主義國家간에는 소위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社會主義國家간에도 平和共存의 一般民主主義原則이 엄격히 通用되어야 한다는 中共이나 尤고의 見解와 對立된다.

끝으로 平和共存은 물론 이데오르기의 平和共存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反맑스主義이다. 平和共存은 現國

際情勢에 適應하는 이데오르기鬪爭의 한 手段인 것이다. 그것은 國際的 次元에서의 階級鬪爭의 特別한 形態인 것이다. 現 事態에 있어서 과연 平和共存이란 것이 階級鬪爭의 手段으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60年 初中 . 쏘理念紛爭의 核心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고 20次 党大会 提제에 대한 中共의 最初의 公開的 批判인 60年 4月 紅旗의 “레닌主義方式”를 引用할 必要까지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또한 61年 朝鮮共產黨大會 當時 党中央委員가 朝鮮 法學界에 보낸 指令에 무엇보다 잘 나타나 있다. 즉 이제는 社會主義에로 移轉하는 것은 資本主義와의 戰爭을 通해서 이룩된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民族解放鬪爭만을 通하여 可能한 것인데 이런 國際情勢를 國際法的으로 더 理論化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平和共存이란 階級鬪爭을 위한 從屬概念인 것이다. 이 점은 모든 社會主義國家에 共通되어 있는 것이다. 즉 平和共存이란 맑스主義的 歷史發展法則의 侍女인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社會主義의 自由主義國家에 대한 合作戰略에는 鬪爭의 性格이 內包되어 있으며 北韓의 경우도 例外가 아님은 말할 必要도 없다. 이 점은 그들의 民族概念이 階級概念에 從屬되어 있는데 더욱 두드러진다. 自由主義的 民族概念은 그것이 궁극概念이란 점에 특징이 있다. 自由主義國家의 政治價值序列에서 民族이란 最高의 地位에 있으며 그 以上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점은 自由主義的 近代國家의 큰 특징인 것이다. 이에 反하여 社會主義國家는 現實로는 近代國家의 裝置를 갖고 있으나 理念上으로는 國際

的이고 또 民族國家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民族이란 階級鬭爭을 위한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나) 끝 맺 음

첫째 西方側의 統合理論을 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에는 適用될 수 있는 余地가 거의 없다. 그 理論은 根本적으로 個人의 行爲에 關係된 것이고 그것을 통한 統合接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社會主義國家의 見解와는 正反對이다. 그들은 人間의 意思나 行爲는 物質條件의 反映이라고 보고 歷史發展은 人間의 意思가 아니라 客觀的인 法則에 따라서 進行된다고 믿고 있다.

둘째 위에서 본 바 같이 그들의 合作戰略이란 것은 우리로서는 問題視될 수 없다. 예를 들어 民族을 본다. 韓民族이란 實體는 물론 存在한다. 그러나 그것을 窮極概念으로 보느냐 手段概念으로 보느냐에 따라 根本적인 差異가 있다. 自主란 用語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自主를 階級的으로 分析하고 自由主義的인 自主概念을 形式概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자주 援用하는 自主, 民族, 統一 등의 概念은 비록 國語辭典式으로 合意된다 하더라도 內容은 判異하다.

셋째 따라서 社會主義國家와 自由主義國家간에는—물론 南北韓關係도 例外는 아닌데—어떠한 特定한 規則이나 規範을 國家의 行爲規則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合意만이 可能하다고 본다. 이것은 朝鮮學者들이 20次 黨大會 以後 오늘날까지 主張하는 그들의

代表的인 見解인 소위 「合意理論」(Agreement theory)에서도 엿볼 수 있다. 國際法에서 말하는 「合意理論」이란 이미 19세기 부터 알려진 것이다. 朝鮮의 「合意理論」이란 國家간의 合意가 어떠한 「意思의 共同体」나 「單一한 意思」로 된다는가 또는 利害의 共同体가 構成되어야만이 國家간의 合意가 可能하다는 古典理論을 排斥하고 있다. 실제로 兩體制간에는 그러한 利害의 共同体도 存在하지 않고 또 그들간의 合意가 어떤 單一意思를 創造할 수도 없는 것이다. 問題는 어떤 規則을 國家行爲規則으로 삼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넷째 그렇다면 國家行爲規則으로 삼을 規則中에 어떠한 性格의 規則으로 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이 問題에 있어서 실은 自由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간에는 현격한 見解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北韓이라는 독특한 政治集團이 안고 있는 特性—重工業과 軍需産業部門에 대한 優先政策과 이로 인한 生必需品部門의 현저한 落後性, 勞動力不足, 個人崇拜 등등, 다시 말하자면 社會主義陣營內에 있어서도 北韓의 最後進性—으로 惹起되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이, 社會主義國家는 自由主義國家와는 달리 모든것이 政治가 支配된다고 觀念되는 單一社會이다. 이에 대하여 自由主義國家는 文化, 經濟, 政治 등의 分野가 서로 다르다고 觀念되는 多元化 된 社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國家는 政治問題 解決을 優先視하고 自由主義國家는 段階的인 問題解決을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따라서 文化, 學術 같은 가장 非政治的이라고 看做되는 問題에 대하여서만이 우선 合意가 可能한 것이다. 政治問題, 그중에서도 軍事問題를 들고 있는 그들의 主張은 問題視될 수도 없는 것이고 萬一에 그런 問題의 討議에 合意된다면 크나큰 混亂이 惹起된다는 것은 自명한 일이다. 軍事問題의 解決이 있어야 緊張이 緩和되는 것이 아니고 政治的인 그러한 霧圀氣가 助成되어야 軍事問題의 討議가 可能하다는 것은 近代國家成立 以後 政治史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現時點에서는 文化, 學術關係 以外에는 各自의 經濟構造에 關係없는 經濟關係까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결론된다. 經濟構造에 關係 없는 經濟交流關係란 多分히 심볼적인 것에 不過하긴 하나 그것이 將次의 問題設定에 主要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1
- 1) Deutsch, K.W. *Italy;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1957), P. 5
 - 2) Deutsch, K.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alysis* (1968) P. 195
 - 3) Deutsch, K.W. "The Impact of Communications up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Said, A.A. e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risis of relevance* (1968)
 - 4) Deutsch, K.W.; "Communication Theory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Jacob, Ph. & Toscano, J.V. e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1964)
 - 5)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 188
 - 6) 특히 Deutsch, K.W.;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s;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 of nationality* (1953) P. 60-67
 - 7) Haas, Ernest;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1968*. XL-522PP.
 - 8) Haas, E: "The Challeng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tumn 1958 M 440-458

- 9) Haas, E: The Uniting of Europe, P.XVIII
- 10) Haas,E: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June 1967. P.315
- 11) Ibid. P.323
- 12) Haas, The Uniting of Europe, p.7
- 13) Ibid, P.XXIII
- 14) Ibid, P.5
- 15) 특히 Balassa,B.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1962), Klauss, L;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U.S.(1968).., Marchal,A; L'Europe Solidaire: les problèmes(1970)
- 16) Hoffmann, Stanley; "Discord in Community: The North Atlantic Area as a partial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63, "Obstinate or Obsolete? The Fate of the Nation-state and the Case of Western Europe ," Daedulus, Summer, 1966 参照
- 17) Haas, Ibid PP. XIV - XV

- 18) Puchala, D; #Patterns in West European Integration#, Report presented to the Congress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 1970. P.6
- 19) Puchala, D: #The Pattern of Contemporary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Mar. 1968. P.47
- 20) Ibid P.59
- 21) Puchala, D;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tumn 1970. PP.732-763 参照
- 22) Puchala, D;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Franco-German Relations, 1954-1965,#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70.
- 23) Lindberg, L.N; #The European Community as a Political System. Notes toward the Construction of a Model#.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June, 1967. PP. 344-387
- 24) Ibid P.349
- 25) Ibid PP. 352-373

- 26) Haas, Schmitter; "Economics and differential Patterns of Political Integration; Propects about Unity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68 参照
- 27) Lindberg, L.N, S.A. Sheingold; Europe's World-Be Polity, Patterns of change in the European Community (1970) P.39
- 28) Ibid, P.42
- 29) Ibid PP.130-131
- 30) 이 問題에 對하는 다음 文獻을 参照
- Ahlberg, René; "Die Entwicklung der empirischen Sozialforschung in der Sowjetunion", Berichte des Osteuropa-Instituts an der Frieden Universität Berlin, Heft 60. (1964)
- Bokiurkiw, Bohdan R; "The post-Stalin "Thaw" and Soviet political Sci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XXX(1964)
- Churchward, L.G.; "Toward a Soviet Political Science",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XII (1966)
- Powell, D.E. & P. Shoap; "The Emergence of Political Science in Communist Countries", APSR vol LXIV(1970)
- Skilling G. "In Search of Political Science in the

USSR",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XXIX (1963)

Theen, R.H.W; "Political Science in the USSR" World
Politics vol. XXIII No. 4 (1971)

ゲ, グラシーモフ: "Bourgeois 的 国際関係の 概念に ついて"
世界経済と 国際関係; 第 4 集 1969

31) 이 問題에 대하여는 다음을 参照

Butenko, A; "社会主義 世界体制発展の若干の 理論的 諸問題",
世界経済と 国際関係; 第 16 集 1972.

Airapetyan, M.E & V.V. Sukhodeev; Nouyi tip
Mezhdunarodnykh Otnoshenii (国際関係의 새로운 Type)
(1964) 菊井礼次訳 "社会主義世界の 国際関係" (1966)

Tunkin, G.I; Droit International public (1966)

NAUKA 偏 Kurs Mezhdunarodnogo Prava (国際法講義)
(1967) 高橋通敏訳; ソビエト国際法の 基礎理論 (1971)

32) 특히 다음 文献을 参照

イ, ドウヂンスキ - "社会主義 共同体と 革命的 世界刷新",
世界経済と 国際関係, 第 1 集 (1968)

エム: マクシーモヴァ; "経済統合 - 若干の 方法論的 諸問題",
同 7 (1969)

イ, ドウヂンスキ; "Leninの 思想と 社会主義 協同体の 若干
の 諸問題" 同 9 (1970)

ア, アレクセーエフ, ユ. サヴェンコ; "社会主義的 統合の 諸問
題" 同 13 (1971)

Y. Belyayev; Two types of Economic Integration, Int'l
Affairs, Apr. P.73

- 33) Walter S. Buckingham: Theoretical Economic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1958) P.26
- 34) Raymond Aron; Dix-huit leçons sur la Société Indus-
trielle (1962) P. 246
- 35) 岡; La théorie du developpement et l'interprétation
historique de l'époque Contemporaine(1965) P.99
- 36) Pitirim A. Sorokin; The Basic Trends of Our Time
(1964) P.78